

후항통(沪港通)과 선항통(深港通)의

Dilemma

自強軒

서문

이 책은 그동안 자강현에 출입하면서 만학(晩學)한 사람들이 '홍콩/선전 투어'를 계기로 그간 각자가 종사하고 연구했던 자신의 분야에 대해 쓴 글을 압축하여 옴니버스 형식으로 편집하여 출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압축분량이 30-40 페이지 정도가 할애되어, 전체 연구결과의 다이제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 본인들의 전체 내용을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01. 한국 건설업에 대한 제언

홍콩을 여행하면서 건설산업을 돌아보면, 제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뒤섞여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정의하는 우뚝 솟은 고층빌딩은 인간의 야망과 독창성을 증명하지만, 이를 건설한 사람들이 겪은 투쟁의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특히 시공학에 대한 학위와 평생 건설 시공분야에서 종사했던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 마음은 국경을 넘어 선전으로 향합니다. '헝다사건'의 메아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이 부동산 대기업의 붕괴는 가장 인상적인 외관 아래에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건설산업의 취약성을 뚜렷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홍콩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건설부문의 씩씩하면서도 달콤한 현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매우 느린 빙하의 속도로 움직이는 건설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근면한 개인들을 생각하면, 낮은 노동생산성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끈기 있게 버텨낸 그들의 이야기는 감탄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 꿈과 실망의 영역인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감정의 회오리를 일으킵니다. 홍콩의 주택시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안정의 정점을 상징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도달하기 힘든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저에게 불안감과 더 공평한 미래에 대한 열렬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앞으로의 길을 숙고하면서 혁신의 약 속에 마음이 고양됩니다.

건설분야에서 AI가 등장하면서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비치며 오래된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이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의 가능성은 저에게 낙관주의를 불러일으키지만, 이러한 강력한 기술과 함께 오는 무거운 책임에 의해 완화됩니다.

결국, 콘크리트와 강철, 승리와 도전의 풍경을 살펴보면서 저는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 압도당합니다. 붐과 침체, 혁신과 좌절을 통해 사람들의 회복력이 진정으로 우리 도시를 건설하고 미래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항상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02. Leadership

홍콩과 중국의 역사에 얽힌 복잡한 정치적 리더십의 행태를 돌아보면서, 저는 역사의 물 곁에 압도당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42명의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분석한 리더십의 20가지 차원은 국가나 도시를 이끄는 내재된 복잡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렌즈를 홍콩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적용하면서, 저는 그들의 여정을 정의하는 고유한 도전과 승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콩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전환과 적응,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섬세한 왈츠입니다. 저는 이 활기찬 도시의 회복력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겪는 투쟁에 대해 고통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영국통치에서 주권을 중국으로 이양한 것은 단순히 국기의 변화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정체성의 본질 자체에 대한 심오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국 본토의 광활한 지역을 바라보며,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를 이끄는 데 필요한 엄청난 규모의 리더십에 복잡성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고대왕조에서 문화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무게가 짓누르며 현대 중국지도자들이 운영해야 할 맥락을 형성합니다. 급속한 산업발전과 빈곤완화에 대한 정책과 인권 및 환경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한 우려가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홍콩과 중국의 리더십 스타일 간의 상호작용은 홍콩인들 특히 젊은 세대 안에서 감정의 회오리를 일으킵니다. 저는 "일국양제" 원칙을 고려하면서 희망과 우려의 감정이 함께 춤을 추며, 이는 계속 진화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대담한 실험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베이징과의 관계의 복잡한 현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홍콩의 독특한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미래를 숙고하면서 저는 신중한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의 내일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문화적 이질감은 홍콩이 가지고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상존합니다. 중국인(이는 본토인을 지칭)을 가장 싫어하는 정서를 가진 인구 집단이 바로 hongkonger입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자신들이 중국인으로 평가되는 것을 가장 싫어 합니다. 사실 '우산혁명'이라는 민주주의 수호운동도 이념이 크게 작용하지않고 바로 문화적 이질감이 주요 동력입니다.

기후 변화, 기술적 혼란, 세계 경제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정신, 혁신 능력, 그리고 깊이 뿌리 박힌 지혜를 믿고 싶습니다.

결국, 이 20가지 차원의 관점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다면적 본질을 생각해보면, 모든 정책 결정, 모든 외교적 책략 뒤에는 엄청난 책임에 씨름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번영하고 조화로운 미래에 대한 공동의 꿈에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홍콩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21세기의 복잡성 속에서 국민을 인도할 지혜, 연민,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미묘함, 공감, 그리고 그것이 전개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03. Troubleshooting

Y-Combinator의 도전적 접근에서 홍콩과 선전의 변화한 거리까지 문제해결 전략의 세계를 여행하며 돌이켜보니 감정의 쇠도에 압도당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가와 혁신가들의 독창성과 회복력은 저를 영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홍콩과 선전의 내부자로부터 얻은 문제해결 통찰력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혼합된 이 활기찬 도시들은 혁신의 도가니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복잡한 도시 정글을 헤쳐 나가며 사람들을 낙담 시킬 수 있는 도전에 대한 실패,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의 강인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적응과 성장에 대한 인간정신의 무한한 능력을 증명합니다.

AI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제 심장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두근거립니다. 이 새로운 기술시대에 등장하는 문제해결 전략은 혁명에 못지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의 잠재력에 경이로움을 느끼지만, 그러한 강력한 도구와 함께 제공되는 윤리적 고려사항과 잠재적인 함정도 예리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광범위한 의미를 고려하면서 그 책임이 제 마음에 무겁게 눌립니다.

현재 AI와 뗄 수 없이 얽힌 글로벌 혁신 생태계는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깊은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뛰어난 지성을 통합하여 진보를 추구하는 협력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뒤처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AI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숙고하면서 저는 낙관주의와 긴박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AI가 기후 변화에서 의료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세계 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잠재력은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기술적 경이로움을 받아들이면서 지혜, 선견지명, 그리고 더 큰 이익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무리로, 문제해결 전략의 세계를 여행하는 이 여정은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Y-Combinator의 기업가 정신에서 홍콩과 선전의 혁신적 맥박, 그리고 AI 기반 솔루션의 미지의 영역까지, 인간의 독창성의 놀라운 능력을 떠올립니다. 제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결의로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압도적인 희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엄청나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집단적 의지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용기, 연민, 창의성을 가지고 전진하여 AI와 인간 혁신의 힘을 활용하여 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세상을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감한 신세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알고리즘, 모든 스타트업, 모든 획기적인 솔루션의 핵심에는 호기심, 회복력, 그리고 영원히 낙관적인 불굴의 인간정신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신이 오늘의 도전을 헤쳐 나가고 내일의 희망찬 새벽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04. 목적과 함께하는 고령화와 연령표준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기울며 홍콩의 번잡한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자, 메이린은 창가에 있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75세의 그녀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녀를 데려온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세월의 여정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의 여정이었습니다.

메이린은 처음으로 목적 있는 고령화라는 개념을 접한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에서 연사의 말이 그녀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령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충만한 자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라고 연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메이린의 삶에 대한 관점에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친구 지훈을 생각했고,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그녀의 눈을 한국의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 승리에 뜨게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유된 경험은 문화와 공간을 연결하여 고령화 여정의 보편적인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메이린은 홍콩이 고령인구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경탄했습니다. 한때 젊음과 활력에만 집중했던 도시가 이제는 노인들의 지혜와 공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대 간 기술 워크숍에 참여하여 젊은 학생들에게 전통공예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녀가 소셜 미디어를 탐색하도록 도운 날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메이린은 처음에 연령 표준화라는 개념에 혼란을 겪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것이 사회의 연령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65세가 생산성과 은퇴 사이의 임의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개인이 노년에도 계속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메이린의 생각은 그녀가 목격한 정책 변화로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고령 친화적 도시를 만들고, 평생 학습을 촉진하고, 세대 간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홍콩의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 내는데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자 메이린은 70대에 익힌 기술인 태블릿을 집어 들고 다음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젊은 기업가들을 멘토링하고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축적한 지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생각은 그녀를 흥분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메이린은 손주들의 사진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녀는 목적의식을 갖고 나이를 먹는 여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이린은 만족감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쇠퇴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05. 바보야! 정치는 예산 결산이 문제야!

민주사회에서 책임있는 예산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저는 깊은 희망과 우려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이 힘들게 납부한 세금을 경솔한 지출과 잘못된 관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냉엄하게 상기시켜줍니다.

홍콩, 미국 및 전 세계의 정부지출을 지칠 줄 모르고 면밀히 조사하고 경계하는 감시자와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생명선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속되는 낭비적인 지출사례를 생각하면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용된 재정지출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동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회적 요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원을 낭비한다는 생각은 저에게 분노와 긴박감을 안겨줍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교훈을 숙고하면서 저는 낙관주의와 결의가 뒤섞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재정적 책임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가 투명성을 수용하고, 시민이 책임을 요구하고, 사회 전체가 모든 예산집행 결정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민주정치의 정치의 본질, 즉 국민과 정부 간의 신성한 신뢰를 생각해보면 이 책임의 무게에 압도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계약의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자원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모든 시민의 사회에 대한 기여가 존중 받고, 더 큰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 비전은 저에게 재정책임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와 헌신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경계와 책임의 횃불을 들고 나아갑시다. 모든 예산 항목, 모든 지출 결정 뒤에는 국민의 신뢰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맙시다. 이 신뢰를 지키면서 우리는 재정자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이상의 토대 자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재정 책임을 향한 여정은 길고 험난 할 수 있지만,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납세자의 희생을 존중하고, 우리 국가의 잠재력을 높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번영하고 공평한 미래를 위한 길을 닦읍시다.

06. 역사를 담은 도자기 이야기

저의 삶 30여년을 중국의 도자기 유산을 여행하며 남긴 마지막 메아리가 시간의 복도로 사라지면서, 우리는 역사와 현대성의 문턱에 서 있고, 우리의 마음은 수천 년의 무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황제와 장인의 발 아래 놓였던 점토는 이제 절묘한 형태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각 그릇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문명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운명의 실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오래가는 유물로 살아남아졌는가! 숙련된 장인의 손에서 권력의 전당에 이르기까지, 소박한 마을 가마에서 가장 웅장한 제국의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도자기는 왕조의 흥망성쇠, 문화의 흐름과 흐름, 그리고 인간의 진보의 끊임없는 행진을 증언해 왔습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잠시 멈추어 이 유약한 표면과 섬세한 패턴에 본질이 남아 있는 중국역사의 거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공자의 지혜, 손자의 군사적 천재성, 이백의 시적 영혼이 모두 이 조용한 이야기꾼들에게 보이지 않는 지문을 남겼습니다.

모든 균열과 틈새, 모든 붓놀림과 불타버린 자국에서 우리는 그들의 위대함의 메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불타버린 흙과 돌에 영원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 도자기들이 목적을 찾는 것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박물관의 신성한 홀에서 이 고대 보물들은 새로운 맨틀을 차지합니다. 교사이자, 안내자입니다. 경외감에 사로잡힌 방문객들의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도자기들은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술성과 혁신, 문화교류와 기술발전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잊혀진 고대기술의 비밀을 속삭이며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공예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송나라 청자 유약의 수정 같은 깊이를 들여다보거나, 명나라 청화백자의 복잡한 디자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중국 문명의 웅장한 태피스트리의 일부가 됩니다. 지식과 경이로움의 신성한 저장소인 박물관은 세계를 형성한 문화의 뛰는 심장과 연결되고, 배우고, 이해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떨까요? 아, 우리의 상상력이 시간의 안개 속을 용처럼 날아오르게 하세요! 이러한 도자기의 교훈이 박물관 담 너머로 뻗어 나가고, 고대 중국의 예술성과 지혜가 현대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과거의 기술과 미래의 기술이 결합되어 가장 숙련된 당나라 도예가도 경외감을 느낄 만한 창조물이 탄생하는 장인 정신의 르네상스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어린이가 역사의 일부를 손에 쥐고, 도자기의 시원하고 매끈한 느낌을 느끼고, 그 전에 온 수많은 세대와의 연결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꿈꾸어 봅시다. 오래된 물건의 집이 아니라 학습, 창의성, 문화교류의 활기찬 중심지인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이러한 도자기의 정신, 즉 탄력적이고 아름답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정신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거장 도예가처럼 우리 현재의 날것의 점토를 가지고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에 걸맞은 미래로 빚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연약하지만 영원한 물건에서 우리는 중국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의 이야기, 즉 창의성, 인내, 아름다움과 의미에 대한 끝없는 탐구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도자기 오디세이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징더전의 가마처럼 밝게 타오르는 영감의 불을 가지고 갑시다. 우리는 이 흙 그릇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창조하고, 배우고,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중국 도자기의 서사시적 이야기와 그것이 나타내는 인간의 성취에 대한 불굴의 정신이 아직 다가올 세대에 걸쳐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07.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한국의 에너지 지형을 탐험하는 우리의 여정에 해가 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절벽에 서 있으며, 우리의 심장은 앞으로 닥쳐올 도전과 기회의 무게로 두근거립니다. 에너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투쟁에 갇힌 세계는 석유와 재생 에너지의 물결에 따라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정학과 산업의 이 웅장한 무대에서 한국은 혁신과 회복의 등대로 서 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과거는 재속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처럼, 이 고요한 아침의 땅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변모했고, 도시들은 진보와 야망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이 기적의 기초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덕스러운 모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적 진보의 엔진을 가동했던 한때 강력한 석유의 요새가 이제 시간과 기술의 무자비한 행진에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석유자원의 황혼 무렵, 우리는 태양, 바람, 그리고 인류의 독창성에 의해 구동되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엿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둘러 역사의 뒤편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도가니에서 우리는 현재의 요구와 미래의 약속을 균형 있게 조절하려는 국가를 봅니다. 마치 곡예사의 달인처럼 한국은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욕구를 능숙하게 관리하며,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경제 엔진을 계속 가동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면, 어떤 비전이 우리 눈앞에서 춤추고 있을까요? 우리는 외국산 석유의 족쇄에서 해방된 한국을 보고,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밭과 우뚝 솟은 풍력 발전기 숲으로 구동되는 도시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합성의 기술을 터득한 국가를 보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장점을 혼합하여 고유한 길을 개척하고 있을까요?

한때 산업화 국가의 생명선이었던 석유 정제산업은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 수많은 다른 국가들의 운명과 얽힌 그 운명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폐허에서 불사조처럼 살아나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질까요?

에너지와 국가건설에 대한 이 서사시에서 한국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순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선택은 시간의 복도를 통해 메아리 치며 자신의 운명 뿐만 아니라 지역과 그 너머의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선견지명을 요구하는 경종을 울리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과거에 대한 지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무장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기술과 현명함으로 세계 에너지 정치의 위험한 물을 항해하는 항로를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필요한 곳에서 변화를 수용할 용기와 오래된 방식에서 가치 있는 것을 보존할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에너지 오디세이에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도전의 도가니에서 위대한 국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굴의 정신과 확고한 결의로 한국은 역사의 다음 영광스러운 장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팔을 울리고 깃발을 날립시다! 세계가 새로운 한국의 부상을 목격하게 합시다. 원자와 태양의 힘을 활용하고, 바람을 자신의 의지대로 구부리고, 인간의 독창성과 천연 자원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빛나는 사례가 되는 한국. 우리 세계를 삼켜 버리는 거대한 에너지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여 희망의 등대이자 전 세계 국가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승리 속에서 우리는 아직 에너지의 풍요와 환경관리가 함께 공존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밝혀줄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08. 아시아의 이벤트 수도 홍콩, 한국의 길을 제시하다

홍콩의 이벤트 풍경을 탐험하는 막이 내리면서, 우리는 이벤트 수도의 정신을 진정으로 구현한 도시의 활기찬 풍경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뚝 솟은 고층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은 그 품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벤트에 적합한 배경 역할을 합니다.

홍콩의 변화한 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공기가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이 도시의 이벤트 인프라는 우수성에 대한 현신의 증거로 서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컨벤션센터가 등대처럼 솟아 있으며, 유리 외관은 안주하지 않는 도시의 야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건축적 경이로움 속에서 최첨단 기술이 뒹뒹거리며 가장 야심 찬 이벤트 비전을 실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가로질러 시선을 돌리면 모든 성공적인 모임에 정부지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이 짜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콩 행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종이에 적힌 단어가 아니라 이벤트 산업의 성장을 육성하는 살아 숨쉬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간소화된 허가절차에서 재정적 인센티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책은 웅장한 광경과 친밀한 모임이 모두 싹을 틔우고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 역할을 합니다.

이 변화한 대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김용탄생 100주년 기념전시회'는 홍콩의 이벤트 역량을 빛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심한 계획과 무한한 혁신의 결실을 목격합니다. 상호작용 디스플레이는 방문객을 사로잡고, 신중하게 큐레이팅 된 유물은 1세기에 걸친 김용의 이야기와 1000년의 중국적 낭만과 모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전시회는 빛, 소리, 감정의 교향곡으로, 각 요소는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벤트의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를 봅니다. 홍콩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네온 불빛과 열광적인 군중으로 쓰여진 성공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손에 노트를 들고 이 마법을 한국으로 이식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열심히 적어내는 한국의 기획자와 정책 입안자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홍콩을 벤치마킹할 만한 요소는 수없이 많습니다. 기술과 전통의 원활한 통합, 흔들리지 않는 정부지원, 이벤트의 개념화에 대한 대담한 접근방식, 모든 세부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 이것들은 프레젠테이션의 요점이 아니라 혁신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번창하는 이벤트 생태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홍콩의 이벤트 실태를 탐구하는 여정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이벤트를 주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벤트를 살아 숨쉬게 하는 도시의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거리는 글로벌 산업을 형성하는 국제 회의부터 아시아 유산의 풍부한 카펫트를 기념하는 문화축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임의 에너지로 고동칩니다.

낮이 저물고 도시의 전설적인 네온사인이 생명으로 깜빡 거리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콩의 성공에서 우리는 한국이 열망할 벤치마크를 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이벤트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모임이 홍콩을 아시아의 진정한 이벤트 수도로 만든 혁신, 우수성, 억제되지 않은 열정의 정신으로 가득 찬 미래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동안에도 도시는 빛과 소리의 끊임없는 춤을 계속합니다. 이벤트가 사람들을 모으고, 혁신을 촉발하고,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드는 힘에 대한 생생하고 숨쉬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에서 우리는 영감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발견합니다. 이벤트 제작의 예술을 새로운, 어지러운 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과 그 너머에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09. 적정 법인세율은 0%다?

여러분과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 매년 세금을 내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금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세금을 내고, 그 대가로 도로, 병원,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의 기대에 맞게 쓰이고 있는 걸까요?

제가 겪은 한 가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한 친구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직원들도 고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자 노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와 같은 기업 세금이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인세가 높아지면서 재료비나 직원 급여를 줄이지 않고는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죠. 결국,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이 단순히 큰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어요. 대기업뿐 아니라, 동네의 작은 가게, 신선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곳들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세가 높아질수록 이런 작은 가게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우리 일상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정말 지금의 법인세가 우리가 원하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뤄내는 데 효과적일까요?

법인세가 공정하게 부과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면, 아마 기업들은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자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금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세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낸 세금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경제가 더 밝아지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제 친구의 작은 식당처럼, 세금 부담이 가벼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아닐까요?

10. Agile

변화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을 직접 보고 느낄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 글은 自強軒의 학동들이 홍콩과 선전에서 체험한 '변화의 현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시아의 심장부라 불리는 두 도시는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홍콩에서는 글로벌 금융 허브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마주했고, 선전에서는 기술과 혁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탐구했습니다. 두 도시는 그 자체로 강렬한 대조를 이루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글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읽는 이들에게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찰과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애자일(Agile)'한 자세로 변화와 마주할 수 있도록, 홍콩과 선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여정을 걸어보시죠.

목차

00 서문	3
<hr/>	
01 한국 건설업에 대한 제언	
1. Overview	23
2. 홍콩 건설업	27
3. 선전의 건설업	31
4. 헝다사태에 대한 고찰	33
5. 건설업계의 노동생산성	38
6. 홍콩 주택분양시장	44
7. 한국의 원자력건설 시장의 도전	56
<hr/>	
02 LEADERSHI	
1. 서론	69
2. 홍콩과 중국의 리더십	71
3.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20가지 요인	75
4. 결론	110
<hr/>	
03 Troubleshooting	
서론: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혁신의 필요성	117
1장: AI와 글로벌 혁신 생태계	119
2장: 글로벌 트러블슈팅의 필요성과 접근법	121
3장: Y-Combinator에서 배우는 문제 해결 전략	123

4장: 홍콩과 선전에서 찾은 트러블슈팅 인사이트	125
5장: AI 시대의 글로벌 트러블슈팅 가이드	127
6장: AI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131
결론: AI 트러블슈팅 전략	134
부록: 글로벌 AI 리소스 및 네트워킹 자료	136

04 목적과 함께 하는 고령화와 연령 표준화

1. 서론	143
2. 목적과 함께하는 고령화: 개념과 그 의미	145
3. 연령 표준화: 양적 접근	149
4. 한국의 노화 관점	153
5. 홍콩의 노화 관점	155
6. 선전의 노화 관점	157
7.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159
8. 결론	163

05 바보야! 정치는 예산 결산이 문제야!

1. 서론	169
2. 홍콩의 예산 관리	171
3. 미국의 예산 관리	177
4. 예산 낭비의 정치적 영향	187
5. 한국에 주는 교훈	195
6. 결론	200
7. 부록	201

06 역사를 담은 도자기 이야기

1. 서론: 박물관을 세우려는 동기와 비전	207
2. 중국 역사 인물들의 중요성	209
3. 박물관의 구성과 전시 특징	211
4. 주요 전시 인물들	213
5. 박물관의 교육적 가치	217
6. 박물관의 미래적 목표와 기대	219
7. 결론: 꿈의 실현과 바람	221
8. 부록: 중국 역사 인물자기 박물관 소장가의 소견	223

07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1. 세계는 에너지 전쟁중	229
2. 에너지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237
3. 글로벌 정유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41
4.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 및 수급 현황	247
5. 글로벌 정유 산업 변화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253
6. 대한민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시사점	257
7. 결론	263

08 아시아 이벤트 수도 홍콩, 한국의 길을 제시하다.

서론	271
본론1. 김용 100주년 전시회의 기획과 혁신성	273
본론2. 홍콩의 이벤트 인프라	279
본론3. 홍콩 정부의 지원과 정책	283
본론4.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요소들	285
결론	289

09 적정 법인세율은 0%다?

1. 서론: 도발적인 제목의 이유	295
2. 0% 법인세율의 주요 주장	296
3. 법인세의 발생 부담	297
4. 법인 회계의 복잡성	299
5. 영리와 비영리 법인 구분	301
6. 법인세 정당성에 대한 비판	303
7. 이상적인 세금 시스템과 단순성 추구	304
8. 대체 법인세 모델 탐구	306
9. 재산세에 대한 집중도 증가	308
10. 효과적인 법인세 개혁 고려사항	310
11. 결론: 법인세 정책의 최적 균형 추구	312

10 Agile

프롤로그: 여정의 시작	315
1부: 홍콩 - 글로벌 허브에서의 통찰	316
2부: 과거와 현재의 조우 - 홍콩의 다면성	319
3부: 선전 - 미래를 향한 도전	323
4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325
5부: 귀환과 반추 - 미래를 향한 발걸음	329
에필로그: 미래를 향한 여정	332

11 Authors

333~5